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회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와 문재인대통령 사이의 회담이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여성동지가 참가하였다.

남측에서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는 북남관계문제와 조선반도평화보장문제, 조선반도비핵화문제를 비롯하여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의견들이 교환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문재인대통령과 분단의 상징이고 대결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매우 의미깊은 상봉을 한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이러한 특별한 곳에서의 만남은 그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앞날에 대한 희망과 꿈을 다시 안겨주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분별과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와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아가야 한다는 민족적사명감과 의무를 다시한번 느끼게 된다고 하시면서 오늘 그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출발선에서 신호탄을 쏘는 마음을 안고 왔다고 말씀하시였다.

문재인대통령은 오늘의 만남을 축하하듯 남측도 확장하다고 하면서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 판문점 분리선을 넘으시는 순간 판문점은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으로 되였다고 말하였다.

문재인대통령은 오늘과 같은 뜻깊은 만남을 이루어낸 김정은국무위원장의 큰 용단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풍금을 터놓는 대화가 계속 이어져 우리들사이에 신뢰가 쌓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문재인대통령은 회담에 상징된 의제들에 대하여 견해일치를 보시고 앞으로 수시로 만나 현안문제들과 민족의 중대사를 진지하게 논의함으로써 북남관계의 새로운 역사를 승기롭게 개척해나가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좋은 효도를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회담에 앞서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기념하여 《평화의 집》 방명록에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선에서

김 정 은
2018. 4. 27

이라는 친필을 남기시고 문재인대통령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과 기념식수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기념하여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대결과 긴장의 땅이었던 판문점에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소나무를 심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문재인대통령은 북과 남에서 각각 준비한 백두산과 한나산의 흙으로 합토하고 대동강과 한강의 물을 함께 뿌려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한봄이 그대로 밀거름이 되고 소중한 이 뿌리를 멀어주는 흙이 되려는 마음, 비바람을 막아주는 바람막이가 되려는 마음처럼 이 나무와 함께 보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을 훌륭히 가꾸어나가며 사시장일 푸른 소나무의 강의를함께나 강의를 정진으로 우리 함께 앞날을 개척해나가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문재인대통령의 명의로 된 묘식비가 소나무옆에 세워졌다.

북남수뇌분들께서 묘식비 제작료를 몇기하시였다. 묘식비에는 《평화와 번영을 심다》라는 글씨가 새겨져있었다.

식수가 끝난 다음 북남수뇌분들께서는 묘식비와 소나무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이어 북남수뇌분들을 모시고 수행원들이 기념사진을 찍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문재인대통령은 기념식수가 끝난 후 산책하시며 진지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리 함께 앞날을 개척해나가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문재인대통령의 명의로 된 묘식비가 소나무옆에 세워졌다.

북남수뇌분들께서 묘식비 제작료를 몇기하시였다. 묘식비에는 《평화와 번영을 심다》라는 글씨가 새겨져있었다.

식수가 끝난 다음 북남수뇌분들께서는 묘식비와 소나무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이어 북남수뇌분들을 모시고 수행원들이 기념사진을 찍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문재인대통령은 기념식수가 끝난 후 산책하시며 진지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